

# Porsche Teens

카메라 카이카 르망 챔피언이며 포르쉐의 전설인 911 S 2.5(ST). 1970년대 초 센세이션을 일으킨 뒤 풀린 사라져버린 이 차는 37년이 지난 후 다시 발견되었다. 그림 ROBERTO RINAL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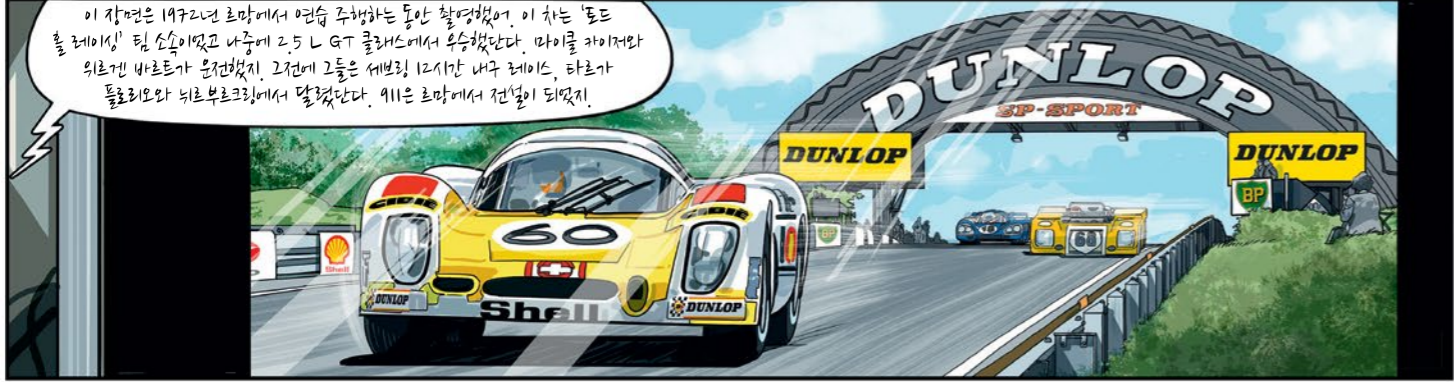
매주 일요일 앙리와 레오니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할아버지, 새로운 포르쉐가 또 있어요.  
911 S/T야.  
S/T라고 했니? 이 911에는 전설적인 선조 모델이 있단다.



이 작품은 영화 역사의 한 걸작이야. 1972년에 911 S 2.5(ST)로 촬영했지. 몇 년 후 VHS 카세트로 샀단다.



어떤 영화예요?  
<스피드 머천츠>란 영화야. 1972년 세계 스포츠카 챔피언십을 다룬 전설적인 다큐멘터리 영화란다. 911 S 2.5(ST)는 숨은 주역이었어. 트랙 촬영을 위해 전면 보닛에 카메라를 달았지. 할아버지도 함께했단다!  
와 멋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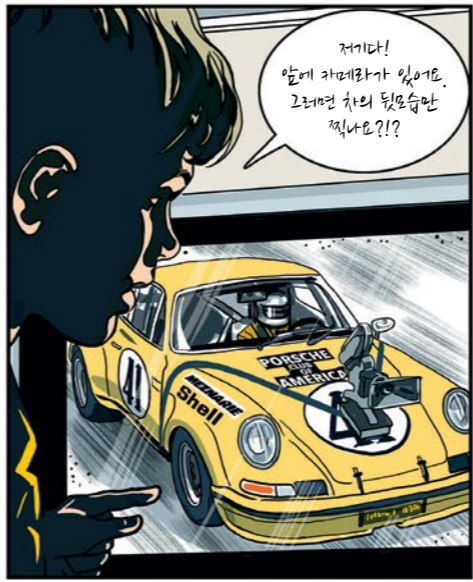
이 장면은 1972년 르망에서 연습 주행을 동안 촬영했어. 이 차는 '로드 레이싱' 팀 소속이었고 나중에 2.5 L GT 클래스에서 우승했단다. 마이클 카이저와 위르겐 바르트가 운전했지. 그전에 그들은 세브링 12시간 내구 레이스, 타르가 플로리오와 니르부르크링에서 달렸단다. 911은 르망에서 전설이 되었지!



와 멋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911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워요.  
대신 이걸 보면 된다.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취미로 영상을 찍었어. 서커스를 갈 때면 항상 촬영했단다. 이런 VHS의 전신인 슈퍼 8 필름이 촬영법은 전부 디지털로 변환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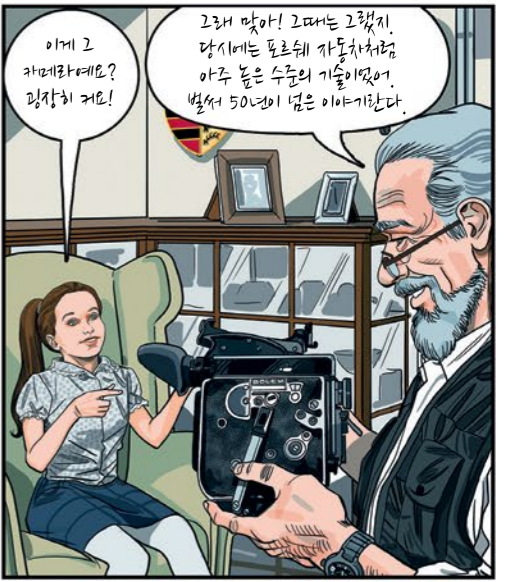
이름은 할아버지잖!  
그래 맞아! 이때는 내 친구가 촬영했지. 네가 보는 차는 전면 보닛에 카메라를 설치한 911이란다. 포르쉐가 이 유형의 911 마지막 시리즈를 이용해 고백 레이싱용으로 24대만 제작한 차 중의 한 대지. 이름은 거의 모든 레이싱 911에 라이 스톤이라 달렸어.



저기다! 앞에 카메라가 있네요. 그러면 차의 뒷모습만 찍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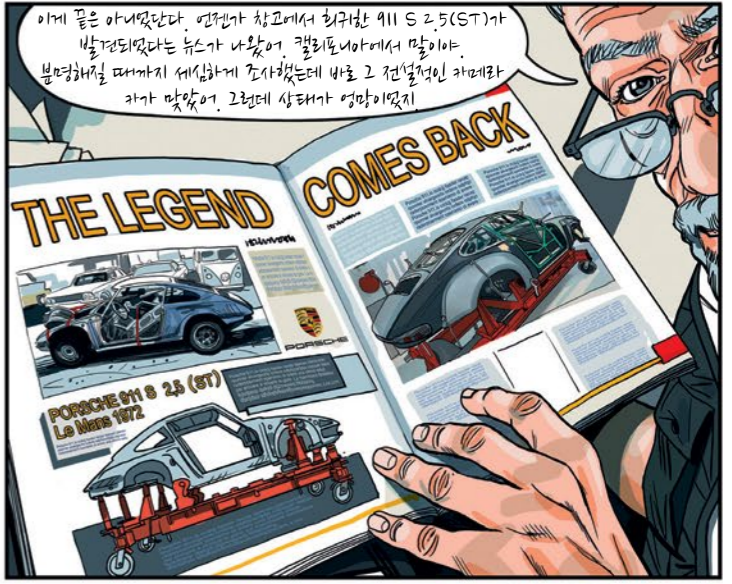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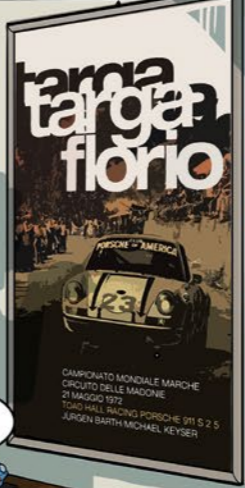
그렇지는 않아. 영화 제작자가 뒤에도 16mm 볼록스 카메라를 설치했거든. 할아버지도 그때 똑같은 카메라를 사용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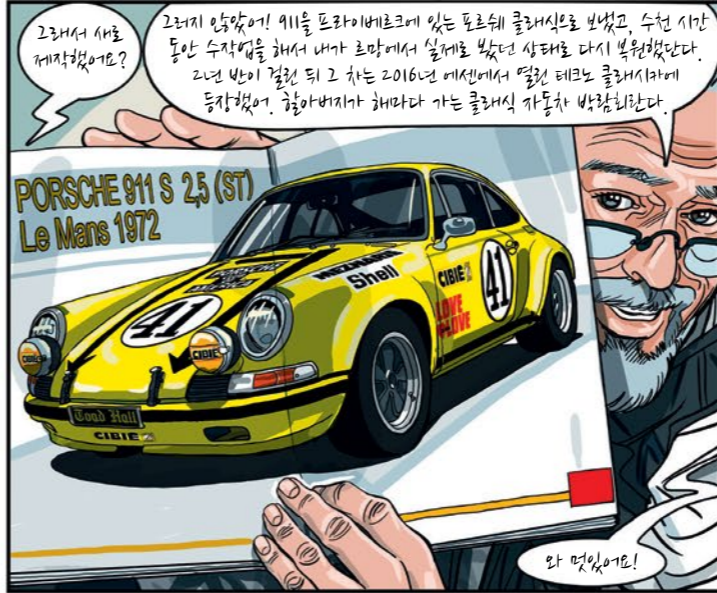
이게 그 카메라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 맞아! 그때는 그렇지 당시에는 포르쉐 자동차처럼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이었어. 벌써 50년이 넘는 이야기란다.



할아버지 르망에서 우승한 후 차는 어떻게 되었어요?  
판매되지 않았어. 미국의 돈 킹슬리에게 팔리자. 그런데 이 미니어처 모델만큼 오래 가지는 못했단다. 1975년부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사라졌다고 여겨졌어.



이게 끝은 아니었다. 영진과 참고에서 최구한 911 S 2.5(ST)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 캘리포니아에서 말이야. 본격해볼 때까지 세심하게 조사했는데 바로 그 전설적인 카메라 카가 맞았어. 그런데 상태가 정말이었지.



그래서 새로 제작했어?  
그래 맞아! 911을 프라이베이트에 있는 포르쉐 클래식으로 보았고, 수천 시간 동안 수작업을 해서 내가 르망에서 실제로 봤던 상태로 다시 복원했단다. 2년 반이 걸린 뒤 그 차는 2016년 에센에서 열린 테크노 클래식스에 등장했어. 할아버지가 해마다 가는 클래식 자동차 박람회란다.



할아버지는 진짜 포르쉐 팬이야! 모시는 게 싫어!  
맞아!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궁금해. 멋진 차 이야기를 또 하실지도 몰라!